

# “안전 최우선” 폐기물 완전 밀봉 수송작전

르포-첫 방폐물 해상 이송 앞둔 한빛원전 가보니

200t들이 1000드럼 특수용기 125개에 담아 선적  
해경 근접 지원 속 843km 48시간 운항 경주방폐장으로  
사용후핵연료 2024년 포화... 처분장 등 대책 마련 시급



■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 과정  
임시저장고 보관  
특수용기 옮겨 밀봉  
안전성 검사  
한진청정누리호 선적  
경주 방폐장 이송

21일 오후 4시20분께 영광 한빛원전 선착장(물양장). 25t짜리 화물트럭 4대가 선착장으로 들어서자 정박 중이던 선박 청정누리호(파나마선적·2600t)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선적 작업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앞서 화물 트럭들은 발전소 임시저장고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싣고 2.9km 떨어진 선착장으로 향했다. 화물 트럭에서 내려진 폐기물은 선내 크레인에 의해 선박 안쪽 특수 저장공간으로 옮겨진 뒤 밀봉됐다.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인 만큼 임시 저장고에서의 상차와 선착장에서의 하차, 선적 등 전 과정에서 방사능 세기가 측정됐다.



21일 오후 영광 한빛원전 선착장에서 특수 밀폐용기에 담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게차에 들려 운반 전용 선박인 청정누리호에 실리고 있다. 청정누리호에 실린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옮겨진 뒤 영구 보관된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

◇첫 이송, 의미와 과정=코박 30년간 한빛원전에 보관 중이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처음으로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으로 이송된다. 한빛원전 1호기가 지난 1986년 8월 상업운영에 돌입한 이후 매일 발생하다시피한 작업자용 의복, 폐고체,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그간 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고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최종 처분장 건설이 부지 선정 논란을 거듭하면서 지난해에야 경주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이 폐기물 이송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날 임시저장고에 200t들이 드럼에 담겨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컨테이너)에 8개 단위로 포장된 후 선착장으로 옮겨졌다. 22일까지 1000드럼을 125개의 운반용기에 담아 선적 작업을 마치고 최종 처분장으로 출항 예정이다. 경주까지의 운항 거리는 843km, 영해선 안쪽 항로를 따라 48시간이 소요된다. 선박 운항에는 해경이 근접 지원한다.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는=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이 끝을 트면서 당장,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

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5620다발로 오는 2024년경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애초 설계대로라면 오는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었으나 설계와 시설을 변경하고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출중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에서 내뿜는 방사선의 세기가 자연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무려 10만 년이 걸릴 정도로 치명적인 것을

감안하고 이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과 건립에만 수십 년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전문가 한병설 박사는 "발전소내 수십 년째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과 조속한 최종 처분장 건립에 대해서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견해가 같다"면서 "민감한 문제라고 처리를 미루거나 폐쇄적으로 논의하다가 결국 추진되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안전성 확보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광=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잠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친분으로 대상자 선정 의혹 제기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운수종사자 해외 연수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잠음이 일고 있다. 해외 연수를 주관한 광주시는 연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인·법인택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0명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일본 큐슈로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예산은 시비 4700여만원이 들었다. 한 개인택시 종사자는 "이사장이 이어나 대의원들과 논의도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 운수종사자들을 친분으로 해외 연수 대상에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 내

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한 상황"이라며 "특정 이사는 지난해 아내를 보냈는데 올해는 본인이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올해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시내버스운수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를 추천 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5년 미만 운수업체 근속자'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자' '광주시 주관 교통문화 해외연수 경험자'는 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달 초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광주시는 원칙에 의해 대상자

가 선정됐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첫날 관광버스 회사를 방문한 것 외에는 3박4일간의 일정이 모두 관광지 투어로 구성돼 있어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 기간(6년) 조항을 위해 고생한 이사분들 중에서 한차례도 해외 연수를 못간 분들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이 넘어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납품비리 징계’ 중학교 교장 숨진 채 발견

회계규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광주의 모 중학교 교장이 나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의 야산에서 광주 모 중학교 교장 A(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들로부터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함께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납품비리로 감사를 받아 괴롭다", "비리 의혹을 받은 8000만원을 모두 반제하겠다" 등의 내용을 광주시교육감을 수신인으로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학내에 예술공방

을 만들고 예술공방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재용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빨리 조성해주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예술공방 시설을 설치하고 강사 채용절차를 밟은 게 사실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함께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실제 예술공방에 관련한 비용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8000만원을 반제하겠다는 고인의 메모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법률지원단 구성

광주여성변호사회, 구속수사 촉구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업소 여주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법원이 신속한 피의자 구속으로 성매매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신

매매처럼 조직범죄 성격이 띠고 있고 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범죄 여지가 있을 뿐더러 성매수자 가운데 경찰과 공무원도 끼여있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여수시 학동의 한 유흥주점 룸에서 여종업원 A(34·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노조간부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구청 과정 등 2명 고발

전공노 광주본부·서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서구지부는 21일 구청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광주시 서구청 이모(58)과정 등 총무과 직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언론매체 박모(43) 기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들이 지난 10월 중순께 서구

공무원노조 A(48) 부지부장의 소속 부서명, 직급, 근무일자, 출·퇴근시간, 초과근무 내용 등 유출되는 안 되는 개인정보도 포함한 내용을 무단유출하고, 불법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보도는 A부지부장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기록에 지문 인증을 마치고 출근길 선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외제 대표차 구입 기쁨에 도심 질주...20대남 결국 경찰서행



○외제차로 만든 대표차를 구입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운전 삼아 차량 트렁크에 친구를 태워 대학가 인근 도로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23)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최근

구입한 대표차에 친구를 싣고 광주시 북구 전남대 인근 후문도로 달렸다는 것. ○경찰은 "납치 의심 신고와 달리 확인결과 20대들이 외제 차량을 300만원에 구입하고 마지 퍼레이드를 하듯 장난을 친 것 같다"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b>7층</b> <b>상가건물 매매</b>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b>(7층) 건물 (사우나 건물)</b></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만, 용 7억)</p> <p><b>매가 15억 5천</b></p> <p><b>010-7384-7800</b></p>	<p><b>신축 상가원룸 매매</b>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b>(4층) 신축원룸</b></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b>매가 6억 7천만</b></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b>010-6670-9800</b></p>	<p><b>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b>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주택) (토 81평, 건 30평) 압록역,선진강 부근 주택 추천 → 매가 5천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용5천(보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1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⑩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 4천, 월 520만) → 매가 6억8천만 ⑪ 커피숍 임대 (25평,1층 도로점) (시설비 4천만, 보 2천만 월 150만) → 매가 1억3천만</p> <p><b>010-6834-44800 / 010-6832-9700</b></p>	<p><b>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b></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p> <p>3. 광산구 박호동 (토300평,건150평) ※ 단층 영업소 식당,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4억 6천 → 최저가 4억 6천</p> <p>4. 서구 마복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번비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6. 광산구 서봉동 (토 40평,건 44평) ※ 송산 유원지 부근,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7천 2백 → 최저가 7천2백</p> <p>★ 직원 구함 ★ 부동산,경매 직원 구합니다 경매 입찰부터 매매,개발기획까지 함께 배우실분 모집합니다.</p>	<p><b>경매교육</b></p> <p>바로실천 교육되고 <b>수익창출가능</b></p> <p>매주 수요일 (오전,후반) 주말반 (오전,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b>경매 물건 추천</b></p> <p>1. 남구 병림동 (토 207평,건333평) (근린시설)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2.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6억 3.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12평,건9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가 3억5천</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